

## 장애인의 진로장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

김건희\*, 윤종균<sup>1</sup>  
<sup>1</sup>경기대학교 직업학과

### The Influence of Career-barrier of the disabled upon dysfunctional Career-thought

Gun-Hui Kim<sup>1\*</sup> and Jong-Kun Yun<sup>1</sup>

<sup>1</sup>The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Kyongg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준비 과정에서 장애인이 경험하게 되는 진로장벽을 파악하고, 이러한 진로장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중인 장애인 180명을 조사한 결과 첫째,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직업정보의 부족, 낮은 사회적지지, 자기명확성 부족, 낮은 자기효능감,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 연령변인은 자기명확성 부족과 직업정보 부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 특성에 따라 직업정보 부족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장애 유형 중에서는 정신장애가 사회적 지지에 높은 유의미성이 검증되었으나, 성별 차이와, 취업 경험은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역기능적 구직의사결정 혼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명확성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그리고 낮은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장애인의 수행불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은 낮은 자기효능감과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for finding out Career-barrier of the disabled, and for analyzing the effect of Career-barrier on the dysfunctional career-thought. For this study, 180 disabled people were survey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barriers that the disabled people perceive are in order;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lack of social support, low self-concept clarity, low self-efficiency, and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Secondly, difference of career-barrier, caused by the traits of the disabled, has influenced the lack of self clarity and occupational information. In addition, among the types of the disabilities, it is proven that the psychological disability highly correlated to the social support, unlikely to gender difference and job experience. Thirdly, the most influential reason on the decision-making confusion for finding job among the sub-variables of dysfunctional career-thought were; low self-concept clarity,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and low self-efficiency. While it turned out that the most influential career-barrier on the performance anxiety for disabled people were low self-efficiency and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Key Words** : Career-barrier, Dysfunctional career-thought, Self-concept clarity, The disabl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직업은 경제적 자립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를 확인해 주고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기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직업은 개인적·사회적·국

가적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직업은 경제적 자립의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비장애인과 같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핵심적 역할을

\*Corresponding Author : Gun-Hui Kim (Kyonggi University)

Tel: +82-10-3042-8802 email: [funnyhaha77@naver.com](mailto:funnyhaha77@naver.com)

Received November 19, 2012

Revised (1st December 26, 2012, 2nd January 8, 2012)

Accepted January 10, 2013

수행한다[1].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 진로발달은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직업을 실현  
시키는데 더 많은 기회의 제한과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  
에 처해 있다[2].

Super[3]는 장애인의 내적·외적 특성이 진로발달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는 장애인이 가진 다  
양한 개인 내적 특성 외에 왜곡된 태도, 인식, 장애와 관  
련된 요구사항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외적 요  
소가 개인의 진로발달과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즉, 개인 내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직업의 진입이  
불가능해서 직업목표를 수정해야만 하고, 현실적이고 자  
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만 하므로 그 결과 장  
애인에게 가능한 직업의 폭은 제한된다는 것이다[4].

장애인의 진로발달에 대해 연구한 Hershenson[5] 역시  
장애인의 진로발달은 비장애인과 같지 않다고 지적하면  
서 개인의 배경, 개인의 직업 특성, 능력, 직업의 선택, 직  
업적응 등과 같은 개인차가 진로발달에서 중요함을 강조  
하였는데, 이는 진로발달에 방해하는 진로장벽 역시  
개인차와의 관련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이 진로장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진  
로장벽 연구에서 개인차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 특히, 장애인의 개인차의 속성을 가지는 ‘장애  
특성’에 따라 비장애인과 다른 진로발달 단계에서 장애  
의 비가시성과 의사소통, 이동의 제약 등으로 인해 대인  
관계의 장벽이나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 요소  
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심리적·발달적 과정에  
부정적으로 작용[6]하게 되므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참  
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장벽은 정서적 변인으로  
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진로장벽이 진로선택과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적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에 따라 진로에 대한 태도나 신념 그리고 진로행동이라  
할 수 있는 진로사고의 기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선택 시기에 놓여 있는 성인  
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지각된 진로  
장벽을 살펴보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 활성화 되는 역기  
능적인 진로사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이고 올바  
른 진로지도와 직업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진로장벽

진로장벽(career barrier)이란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  
나 사태를 의미한다[7-9]. 이러한 진로장벽은 개인의 내  
적, 외적 환경 속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 반응  
[10]으로 개인 내외의 상황에 대한 개인적 해석과 역동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진로장벽에 대하여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서는 실제하는 외부 환경적 요건보다  
진로장벽에 대한 개인의 인지가 더 중요함을 지적한다  
[11]. 이들 연구에서는 외적 요인들이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객관적 요인에 의한 조건 자체보다 개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 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여성의 진로발달에서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여성이 진로에서 진로장벽의  
존재 또는 그것에 대한 지각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  
인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진로목표나 진로선택 등의  
진로행동에 변화가 야기된다고 주장하면서 진로장벽에  
대한 개인의 인지가 진로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제한-타협이론(circumscription-compromis theory)에서  
는 진로장벽이 개인의 자기 개념과 직업에 대한 지각된  
접근 가능성이 상호 작용 하면서 개인의 진로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12]. 장애인이  
경험하는 진로장벽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장  
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직업이 요구하는 직능 유  
형과 수준에서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  
특성은 곧 진로장벽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진로장벽을 하나의 자기 개념으로  
가지고 직업을 준비하게 되며 현실적인 제한에 타협하기  
위해 자기 개념과 부합되며 접근 가능한 낮은 직능수준  
의 직업을 선호하고 보수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직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이  
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진로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한된 진로를 경험하고 있다 측면에서 연구적 관  
심이 요구된다.

초기 진로장벽 연구들은 여성, 소수 인종 등 사회적 약  
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감 또는 낮은 성취동기와 같  
은 ‘내적인 장벽’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가난  
혹은 임금 차별과 같은 ‘외적 조건에 의한 장벽’의 이분  
법적으로 분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로발달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설명하였다. 소수 인종을 대상으로 연구한  
McWhiter[13]는 멕시코계 미국인과 유럽계 미국인 고등  
학교 저학년과 고학년들의 지각된 장벽에서의 차이를 살  
펴 본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유럽계 미국인들보다

멕시코계 미국인이 더 많은 장벽들을 예상하였고 이러한 차이들은 인종과 성 집단 안에서 일치되었다.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장벽 연구를 시작으로 이들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많은 장벽을 지각하고 있음[14-17]이 밝혀졌고 여러 변인들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어 왔다. 또한 진로장벽의 지각은 여성의 진로발달에서 직업의 선택, 유지 및 포기 등에 영향을 미치며[18-21], 진로장벽의 요소 제거가 진로결정과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낙관적 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22,23].

그러나 진로장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비장애인의 진로장벽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로 장애인의 진로장벽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의 사회적 취약 계층의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가 [24-26] 일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사회적 취약 계층은 각 집단별 특성이 강하므로, 장애인의 진로장벽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는 진로발달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몇몇의 연구[4,27,28]만 있을 뿐이며, 직업선택의 시기에 놓여 있는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선택의 시기에 있는 성인 장애인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지각하게 되는 진로장벽에 관심을 두고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진로발달에서 진로장벽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제안하는 연구[14-20]

[21-23]들은 진로장벽의 제한된 연구 변인들 예를 들어, 진로자기효능감이나 진로의사결정, 진로준비행동 등을 다루었다[29]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서적 변인인 진로장벽이 인지적 변인인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진로장벽이 가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2.2 역기능적 진로사고

인지(cognition)는 외부자극의 지각, 기억에 저장된 내용(신념, 가치, 가정, 이론, 철학 등), 외부 혹은 내적 자극의 처리(사고, 평가, 해석, 의미부여 등) 등과 같이 인간 내부에서 진행되는 정보처리와 관련된다는 제반과정을 의미한다[30]. 이러한 인지는 개인의 감정 혹은 행동은 사건이나 상황자체가 아닌 그것에 대한 해석, 즉 인지에 의

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때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진로문제의 주된 원인도 인지적인 부분에서 높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Krumboltz[31]는 인지가 진로결정 및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밝혔고, 역기능적 인지는 내담자의 혼란과 미결정, 의사결정 회피, 무력감, 우울, 흥미저하 등을 야기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신념대로 진로의사결정과 진로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만약 신념이 정확하고 건설적인 경우 그 신념은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지만, 부정확하고 자기 파괴적일 경우 성취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32]는 진로의사결정에서 인지적정보처리(cognitive information process: CIP) 이론과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 CT)의 이론적 개념을 근거로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s Inventory: CTI)를 개발하였다.

진로사고(career thoughts)란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태도, 신념, 감정, 행동 등에 대한 총체적인 사고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며,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생각들로 내담자의 혼란과 미결정, 무력감과 우울을 야기하며 진로의사 결정을 회피하게 만든다[33]. 또한 이러한 사고들은 무력감, 확신 부족, 두려움, 좌절감, 죄책감과 같은 정서를 야기하는 등 내담자의 말과 감정, 행동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34]. 개인이 진로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활동과 관련된 정보처리기술이 포함된다. 이 과정을 거쳐 피라미드의 가장 상위에 있는 실행과정 영역에 도달하는데 이 영역에 초인지가 포함되어 있다. 초인지는 진로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인지적 전략의 선택과 지속을 조절한다[35].

역기능적 진로사고(dysfunctional career thoughts)는 의사결정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 외적갈등(external conflict)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36].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의해 진로문제해결능력이 제한될 때 그리고 계속되는 진로문제해결에 대한 무능력이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강화시킬 때 불완전한 순환이 이어진다. 이 때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순환의 과정이 끊어져야 한다. 역기능적 사고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게 되면 정서는 점점 긍정적이 되고 개인은 자신의 자원을 문제해결을 위해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37].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내담자의 진로의사결정력을 저해하고 흥미 발견을 어렵게 하며, 면접과 같은 구직활동을 방해한다. 이러한 사고들은 무력감, 자신감 부족, 두려

움, 좌절감, 죄책감 등과 같은 정서를 야기하여 내담자의 말과 감정, 행동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38,39,40]. 이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정서는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개인이 집중하고 기억하는데 방해가 된다. Dogde[41]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정서적 변인이 아니라 인지적 변인이며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대학에서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통해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과 진로선택을 실행을 저해한다고 추론했다[42].

한편, 국내 연구에서 진로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개인 내적 변인은 자아존중감, 통제소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이 있다[43-45]. 이 밖에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애착, 가족체계 등도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46-49]에 의한 고등학생의 진로유형화 연구에서 진로에 관한 역기능적 사고가 많을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 진로정체감이 낮으며, 미결정수준, 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선행연구를 보면,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집단, 예를 들어 범죄자, 물질남용성인, 학습 무능력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그리고 구직을 준비하는 장애여성의 경우 더 많은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지고 있음이 검증[50,51,52]되어, 국내에서도 이들 집단의 특성이 진로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3. 연구방법

####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표본추출방법은 집락표집(cluster sampling)을 하였고, 설문조사는 2012. 10. 22 ~ 28. 6일에 걸쳐 일산, 대전, 부산 소재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20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누락된 응답과 조사에 맞지 않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총 180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확보한 후,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로장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lpha$  계수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이용하였다.

셋째, 개인 특성과 장애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분산분석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heffe 사후 검증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였다.

넷째, 진로장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간에 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이상의 검증에서는 유의도의 유의수준인 5.0%( $\alpha = .05$ )이하를 채택하였다.

### 3.2 연구 도구

#### 3.2.1 표본의 특성

분석에 사용된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55명(86.1%), 여자 25명(13.9%) 등이며, 최종학력은 고졸이하가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44.4%)가 가장 많았다.

#### 3.2.2 진로장벽의 측정 도구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은 진로장벽 측정도구를 제안하고 있다[17,53,54]. 여러 도구들의 측정 요인들 중 공통되는 요인을 추출하여 장애인에 맞게 적절한 문장표현으로 변환하였다. 이후 직업상담전문가 2명과 특수교육전문가 1명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예비척도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예비척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요인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5개 하위 요인의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적 진로장벽 요인으로는 자기명확성 부족, 낮은 자기효능감,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등 3개 하위요인으로, 첫 번째 자기명확성 부족 요인은 자기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어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두 번째 낮은 자기효능감 요인은 자신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무엇 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낮은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요인은 부모나 주변 사람의 기대에 대한 갈등 또는 사회적 요구 조건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외적장벽은 부모나 주위 사람들 등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낮은 사회적지지 요인과 충분한 직업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의미하는 직업정보의 부족 요인 등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타당도는 요인적재량 .50~.80으로 나타났고,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5로 드러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55	86.1
	female	25	13.9
Age	20s below	81	45.0
	30s	64	35.6
	40s above	36	19.4
Academic Background	Bachelor's degree	73	40.6
	above under	107	59.4
Job experience	yes	142	78.9
	no	38	21.1
types of the disabilities	physical disability	80	44.4
	brain lesions	41	22.8
	visual handicap	14	7.8
	hearing impairment	31	17.2
	mental disorder	14	7.8

### 3.2.3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측정 도구

진로사고는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과 Saunders이 개발하고 이재창 외[37]가 변안한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를 근거로 두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뽑아 재변안하여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후 사전검사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선택과정과 관련된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구직의사결정 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의 총 3개 하위 요인의 총 19문항을 추출되었다.

첫 번째 하위척도인 구직의사결정 혼란은 구직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혹은 정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의미하며 여기서 높은 점수는 구직의사결정에 대한 좌절감이나 난감함, 불안, 화, 우울함과 같은 부적감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가능한 선택 안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불안은 구직의사결정과정의 결과에 관한 일반화된 불안을 반영한 척도로 이러한 불안은 미결정을 지속 시키게 된다. 수행불안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하거나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는 등의 일련의 선택과정에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외적 갈등은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하는 갈등에 관한 것으로 중요한 타인에게서 얻는 정보의 중요성과 자신이 지각한 정보의 중요성 간에 균형 조절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반영한다. 이 척도의 타당도는 요인적재량이 .60~.72로 나타났고,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69를 얻었다.

## 4. 연구결과

### 4.1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연구대상자의 진로장벽에 대한 기초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을 가장 높은 진로장벽으로 지각하며,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urveyee

Classification	M	SD
low self-concept clarity	14.63	4.19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11.23	3.14
low self-efficiency	12.06	3.31
lack of social support	14.93	5.20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15.29	4.18

장애인의 진로장벽이 개인별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성별은 진로장벽 요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취업경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환경적 특성이 성별, 연령, 취업경험, 장애유형에 구분 없이 공통으로 진로장벽에 대해 지각하고 있음으로 추측된다. Table 3은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 20대 이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그 직업정보와 자기명확성 부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나이가 어릴수록 진로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p < .01$ ). 단,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요인에서는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집단별로 의미 있는 구분은 나오지 않았다( $p < .05$ ).

[Table 3] An analysis of the career-barrier by different age groups

Classification		M	SD	F	posteriori tests
low self-concept clarity	20s below	15.81	4.34	6.24 **	b, c<a
	30s	13.60	3.61		
	40s above	13.80	4.21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20s below	11.88	3.14	3.30 *	
	30s	10.83	3.13		
	40s above	10.49	2.96		
low self-efficiency	20s below	11.91	3.34	1.00	
	30s	11.86	3.16		
	40s above	12.77	3.53		
lack of social support	20s below	15.04	5.50	.43	
	30s	14.50	5.05		
	40s above	15.49	4.84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20s below	16.41	4.25	5.50 **	b, c<a
	30s	14.31	3.75		
	40s above	14.51	4.28		

\* $p < .05$ , \*\* $p < .01$

Remarks) a. 20s below b. 30s c. 40s above

학력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을 분석한 Table 4에 의하면 취업과 관련된 직업 정보를 구하는데 있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장애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장애 유형들 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신장애 유형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낮은 사회적 지지를 높은 진로장벽으로 지각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p<.05$ ).

[Table 4] An analysis of the career-barrier by different levels of education

Classification			M	SD	t
low self-concept clarity	Bachelor's degree	above (n=73)	14.19	4.03	-1.17
		under (n=107)	14.93	4.28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Bachelor's degree	above (n=73)	11.35	3.04	.38
		under (n=107)	11.16	3.22	
low self-efficiency	Bachelor's degree	above (n=73)	11.79	3.09	- .89
		under (n=107)	12.24	3.46	
lack of social support	Bachelor's degree	above (n=73)	14.53	4.93	- .85
		under (n=107)	15.21	5.38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Bachelor's degree	above (n=73)	14.47	3.85	-2.22 *
		under (n=107)	15.86	4.32	

\* $p<.05$

[Table 5] An analysis of the career-barrier by different types of disability

Classification		M	SD	F	posteriori tests
low self-concept clarity	physical disability (n=80)	14.49	4.21	.61	
	brain lesions (n=41)	14.20	3.96		
	visual handicap (n=12)	14.71	5.74		
	hearing impairment (n=31)	14.87	3.91		
	mental disorder (n=14)	16.14	3.72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physical disability (n=80)	11.16	3.20	1.25	
	brain lesions (n=41)	10.71	3.12		
	visual handicap (n=12)	11.43	3.90		
	hearing impairment (n=31)	11.29	2.91		
	mental disorder (n=14)	12.86	2.32		

low self-efficiency	physical disability (n=80)	12.06	3.42	.17	
	brain lesions (n=41)	12.12	3.37		
	visual handicap (n=12)	11.43	3.48		
	hearing impairment (n=31)	12.10	2.87		
	mental disorder (n=14)	12.43	3.69		
lack of social support	physical disability (n=80)	14.24	4.88	3.02*	a,d<b, c<e
	brain lesions (n=41)	15.39	5.85		
	visual handicap (n=12)	15.00	4.39		
	hearing impairment (n=31)	14.19	4.61		
	mental disorder (n=14)	19.14	5.50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physical disability (n=80)	15.47	4.31	1.21	
	brain lesions (n=41)	14.68	4.16		
	visual handicap (n=12)	14.14	5.20		
	hearing impairment (n=31)	15.32	3.27		
	mental disorder (n=14)	17.14	4.09		

\* $p<.05$

Remarks) a. physical disability b. brain lesions c. visual handicap d. hearing impairment e. mental disorder

#### 4.2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상관관계

장애인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진로장벽 전체와 역기능적 진로사고 하위 요인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01$ ) 이는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활성화 수준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Table 6] The correlations between career-barrier and dysfunctional career-thought

	1	2	3	4	5	6	7	8
1	-							
2	.64**	-						
3	.63**	.54**	-					
4	.50**	.31**	.50**	-				
5	.83**	.62**	.67**	.51**	-			
6	.77**	.66**	.65**	.47**	.73**	-		
7	.39**	.52**	.50**	.28**	.40**	.50**	-	
8	.47**	.44**	.47**	.36**	.44**	.48**	.36**	-

\*\* $p<.01$

Remarks) 1. low self-concept clarity 2.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3. low self-efficiency 4. lack of social support 5.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6. decision-making confusion for finding job 7. commitment anxiety 8. external conflict

[Table 7] Effect of career barrier on dysfunctional career-thought

dependent	independent		$\beta$	t	F	R <sup>2</sup>
decision-making confusion for finding job	career barrier	low self-concept clarity	.32	4.82 ***	72.81 ***	.68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24	3.84 ***		
		low self-efficiency	.18	2.82 **		
		lack of social support	.04	1.20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09	1.33		
commitment Anxiety	career barrier	low self-concept clarity	-.02	-.31	15.94 ***	.31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30	4.66 ***		
		low self-efficiency	.18	2.75 **		
		lack of social support	.03	.77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01	-.14		
external conflict	career barrier	low self-concept clarity	.09	1.42	14.83	.30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14	2.29		
		low self-efficiency	.15	2.38		
		lack of social support	.05	1.60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02	-.27		

\*\*p< .01, \*\*\*p< .001

### 4.3 진로장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력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진로장벽은 역기능적 진로사고 변인 중 구직의사결정 혼란과 수행불안 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적 장벽 요인인 낮은 자기효능감,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그리고 자기명확성 부족의 장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구직의사결정 혼란과 수행불안을 일으키는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김세정[55]의 연구, 그리고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고한 김미란[56]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자기명확성이 조건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면 미래 진로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조망하지 못한다는 우영지·이기학[5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파악하고,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진로문제해결을 위하여 교정하여야 할 진로사고는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살펴본 결과, 직업정보의 부족을 가장 높은 진로장벽으로 지각하며 그 다음으로는 낮은 사회적지지, 자기명확성 부족, 낮은 자기효능감 그리고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20대 이하의 낮은 연령과 고졸이하의 학력 특성에서 직업정보 부족을 높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능력이 더 강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신감 더 많고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맥락의 사회적 취약 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노경란 외[58]에서도 직업의 종류와 직업정보 원천 등에 대한 정보의 한정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희정·김금미[5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장애 유형 특성 중에서는 정신장애 유형에 낮은 사회적지지 장벽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정신장애인은 다른 신체적 장애에 비하여 그 장애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 직업적 독립은 어렵지만 생산적인 직무 수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영미[60]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강한 편견 이를테면, “정신장애인은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재발을 하게 된다”, “정신장애인은 회사에 불을 지른다”, “정신장애인은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등의 편견들로 취업할 기회조차 주지 않게 되고 커다란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정신장애인의 낙인(sigma)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부모나 주위 사람들 등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게 되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부당함에 대항하지 못함’, ‘이방인으로 살아감’, ‘스스로 얽매임’, ‘자

기존재를 감추려함' 등의 주제로 나타났다[61]. 위의 실험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신 장애인에게 직업을 가진다는 노력은 '장애 특성'외에 또 하나의 장벽으로서의 소외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기본적인 요건중의 하나가 사회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장적응이나 사회성기술에 대한 내용이 직업상담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에서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성별 특성변인이 진로장벽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로장벽 연구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성별 특성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인 여성 또는 소수민족에게서 높게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62-64]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통해서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높은 수준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진로장벽은 부정적인 정서적 변인으로서, 진로문제의 장면에서 인지적 변인인 진로사고에 그 역기능이 활성화 되는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역기능적 진로사고 변인 중 구직의사결정 혼란과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은 내적 진로장벽인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과 낮은 자기효능감 이었다. 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성인기에서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이 육체적·심리적 독립을 저해하고 있기에 부모나 가까운 주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성취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은 자기효능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내적 진로장벽은 진로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지적 명확성의 문제나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좌절감, 불안, 우울 등으로 진로미결정의 무능력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내적 진로장벽인 자기명확성 부족 요인은 구직의사결정 혼란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진로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진로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명확성 부족은 나이가 적을수록 아직 진로문제에 있어서 객관적 자기와 직업을 연관시키지 못할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Korman[65]의 주장과 일치하며, 초등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성경 외[66]의 횡단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진로장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난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허균[67]의 종단연구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로장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비장애인의 직업상담은 파슨스의 직업상담 3요인설 이래,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도 이론적으로는 바탕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진입 가능한 직업의 종류와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직업요인에 자기 특성을 맞추는 진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 인간에게 직업이 가지는 그 중요성과 가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므로 장애인의 진로 역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흥미와, 적성,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신체적 기능의 이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장애인이 개인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임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한 직업지도 방안을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해석에 유의할 점은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Table 2의 결과와 같이, 외적장벽 요인인 직업정보의 부족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적장벽-낮은 사회적지지, 내적장벽-자기명확성 부족, 내적장벽-낮은 자기효능감, 그리고 내적장벽-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요인 순으로 지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은 외적장벽을 진로장벽의 주요 요인으로 자기 보고 하고 있으나, 진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에서는 내적장벽들이 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다소 모순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상이한 연구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London[68]의 진로장벽 대처 모델을 적용하여 본다면 개인의 내·외적 환경을 주관적 해석하여 인지양식, 심리적 변인과 정서에 따라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수준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대처행동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진로사고에는 장애인이 진로장벽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심리적 기제를 투사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장애인이 높게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그것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그것을 제거 하는 것이 진로장벽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법이라고만 해석이 되어왔으나, 한 단계 더 깊게 나아가 그러한 요인이 추출되게 된 개인적, 환경적, 경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고 진로장벽이 개인에게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파악하여 하나의 인간을 완벽히 이해하는 직업상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게도 진로와 관련된 많은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목표 혼란, 자기 삶에 대한 주도성 부족 등의

자신의 정체감 혼란에서 오는 내적 역동임을 이해시키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과 확신을 갖도록 돕는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기, 대전, 부산 등 지역 분포가 고루하도록 하였으나 장애인의 특성상 설문에 응답하기를 거부, 설문 전체 문항에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혹은 본인이 표기하기를 꺼려하는 등의 부적절한 응답이 많았다. 그래서 전체 표집의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부적절한 설문을 모두 제외하였으나, 유효한 사례수라는 의미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로장벽을 분석하는데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등의 개인 특성 변인들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표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 유형별 공통으로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유형별 요인을 비교 추출하여 장애인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한 진로교육이나 직업상담 개입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제언할 것은 국내에서의 진로장벽 관련 연구는 양적으로 학생과 여성에게 치우쳐져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진로장벽과 관련된 많은 질적 변인을 확장하는 연구도 중요하나 진로장벽 연구의 시작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론적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는 의미에서 사회적 열악한 계층인 예를 들어 장애인, 소수민족,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Byun Yong · Chan Lee Eun · Jung Lee Kye Cheol,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Duration of Job Maintena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yonggi Province of Korea",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14, No 1, pp. 105-131, 2004.
- [2] Km Hyun Sub, "Research of Disabilities Policy", Kyonggi: bubmoonsa, p. 28, 2008.
- [3] Super, D. E.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1957.
- [4] Lee Wan Woo, "A study on career Development status of Individuals with Sensory Impairment", *Journal of Emotional Disturbances & Learning Disabilities*, Vol. 18, No. 1, pp. 313-336, 2002.
- [5] Hershenson, D. "Vocational Guidance and Handicapped In E. L. Herr(Ed)", *Vocational Guidance and Human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pp. 478-501. 1974.
- [6] Lee Dal Yob · Park Hee Chan · Kim Dong LL · Park Hye Je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Living Skills Inventory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Demographic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14, No 1, pp. 183-215, 2004.
- [7] Crites, J. O., "Vocational psychology: The study of vocational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1969.
- [8] Fitzgerald, L. F, Fassinger, R. E. & Betz, N. E..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alsh, W. B.& Osipow", S. H.(eds) (2nd edition)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Mahway,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5.
- [9] Luzzo, D. A.. "Correlates of mex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Chicago, IL, August), 1997.
- [10] London. M..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24, No 1. pp. 25-38, 1997. DOI: <http://dx.doi.org/10.1023/A:1025082420866>
- [11]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pp. 45, 79-122, 1994.
- [12] Gottfredson, L. S.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pp. 545-579. 1981.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28.6.545>
- [13] McWhirter, E. H.,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pp. 50, 124-140, 1997.
- [14] Luzzo, D. A.,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to the prediction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pp. 36, 61-66, 1995.
- [15] McWhirter, E. H.,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pp. 50, 124-140, 1997.
- [16] Swanson, J. L., & Daniels, K. K.,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raw data",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94.
- [17] Swanson, J. L., & Tokar, D. M.,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pp. 38, 92-106, 1991.
- [18] Fitzgerald, L. F. & Betz, N. E., "Issues in vocational

- psychology of women. In W. B. Walsh & S. 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1983.
- [19] O'Brien, K. M. & Fassinger, R. E.,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pp. 40, 456-469, 1993
- [20] Choi Yeng Suk, "Studies on Type of Career Compromise of women who experienced Career Barriers and returned to the jobs", master's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Kyonggi National University, pp. 48-50.
- [21] Son En Reung, "The relation between Career Barriers that a college woman experienced and Her Psychological Factor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4 No 2, pp. 415-427. 2002.
- [22] Taveira, M. D. C., Silva, M. C., Rodriguez, M. L. & Maia, J.,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areer exploration in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Counselling and Guidance*, pp. 26, 89-104, 1998.
- [23] Byun Jae Gean, "Policy Measures to Activate Older Persons : Focusing on Older Persons in Seoul", *Research of Old Persons Welfare*, Winter, pp. 251-273, 2001.
- [24] Jang Sun Suk, "Influence of Career Barrier that a prisoner experienced on Career Aspirations", master's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Kyonggi National University, p. 62. 2010.
- [25] Nam Sang Cheol, "Studies on How to Improve the welfare of a reformatory through Path Analysis of a second Conviction", Doctoral dissertation at SinLa University, p. 150. 2009.
- [26] Kang Woll Young, "Influence of employment barrier that the aged and middle aged experienced on the decline of willingness to work", master's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Kyonggi National University, pp. 42-45, 1999.
- [27] Choi Su Yun, " A Study o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visually impaired students and Sighted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1.
- [28] Yoon Hyun Hee, "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Social Supports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Aspiration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master's dissertation at Daegu University, 2008.
- [29] Son Eun young, Lee Soon Hee, "Research trend of career group guidance and programs in korea and suggestions on its follow-up studies-Focusing on theses after 2001",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32, No. 2. pp. 129-147, 2011.
- [30] Keon Seok Man, "Cognitive Structure of Self-Concept and Measurement Tools of It : the Characteristic of Self-Concept of SNU Students", *Studies of Students*, Vol. 31, No 1, pp. 11-38, 1996.
- [31] Krumboltz, J. D., "The Career Belief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pp. 72, 424-428, 1994.
- [32]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 Reardon, R. C., "A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services: Translating concepts into practic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pp. 41, 67-72, 1991.
- [33] Dowd, E. T., "Cognitive career assesment: Concept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ment*, pp. 3, 1-20, 1995.
- [34] Corbishley, M. A., & Yost, E. B., "Assessment and treatment of dysfunctional cognitions in career counseling", *Career Planning and Adult Development Journal*, Vol. 5 No 3, pp. 20-26, 1989.
- [35] Park Mee Jin · Choi In Wha · Lee Jae Chang, "A Study of Clustering Career Indecision Types for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3, No 1, pp. 125-146, 2001.
- [36]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Reardon, R. C., & Saunders, D. E., "Career Thoughts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6.
- [37] Lee Jae Chang · Choi In Wha · Park Mi Jin, *Career Thinking Test*, Seoul: Guidance, 2004.
- [38] Kim Yu Hye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master's Dissertation of Hongik University, pp. 51-53, 2005.
- [39] Dowd, E. T., "Cognitive career assesment: Concept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ment*, pp. 3, 1-20, 1995.
- [40] Corbishley, M. A., & Yost, E. B., Assessment and treatment of dysfunctional cognitions in career counseling", *Career Planning and Adult Development Journal*, Vol. 5, No 3, pp. 20-26, 1989.
- [41] Dodge, T. D.,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of origin and selected career development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a Tech University, 2001.
- [42] Lee Jae Chang · Choi In Wha · Park Mee Jin, "Effects of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Career Indecis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4, No 2, pp. 401-414, 2002.

- [43] Kim Yu Hye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master's Dissertation of Hongik University, pp. 51-53, 2005.
- [44] Kim Su Ri,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on Career Development of teenagers", doctoral Dissertation of Hongik University, pp. 82-84, 87 2005.
- [45] Kim Se Jung, "The Stock Control of College Students and Careers Navigation Behavior through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he Journal of Korea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2, pp. 93-107, 2008.
- [46] Koh Hyang Ja · Kim Young Ah, "The Allpicability of the Con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Career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5, No 3, PP. 383-402, 2003.
- [47] Choi Hyun Young,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and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on their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master's Dissertation of Kunkuk University, pp. 42-43, 2005.
- [48] Choi In Wha,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 of the Family System of College Students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Research of Student Life, Vol. 17, pp. 61-80, 2003
- [49] Park Mee Jin · Choi In Wha · Lee Jae Chang, "A Study of Clustering Career Indecision Types for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3 No 1, pp. 125-146, 2001.
- [50] Dodge, T. D., "An 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of origin and selected career development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a Tech University", 2001.
- [51] Keim, J., Strauser, D. R, & Ketz, K.,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career thoughts of women in three low socioeconomic status group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pp. 39, 31-42, 2002.
- [52] Strauser, D. R., Lusting, D. C., Keim, J., Ketz, K., & Malesky, A., "Analyzing the difference in career thoughts based on disability statu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pp. 51, 2-11, 2002.
- [53] Hwang Ma Hyang · Lee eun Seol · Yu Seng Keong, "Measurement of Career Barrier that Young Girls Experienced and Validity of an appointment", Studies Counselling, Vol. 6, No 4, 2005.
- [54] Kim Eun Young,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doctoral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1.
- [55] Kim Mi Ran, "Influence of Unreasonable Beliefs and Self-Efficacy regarding Career Decision on Career Preparation", doctoral Dissertation of Jeju University, pp. 42-43, 2007.
- [56] Kim Mi Ran, "Influence of Unreasonable Beliefs and Self-Efficacy regarding Career Decision on Career Preparation", doctoral Dissertation of Jeju University, pp. 42-43, 2007.
- [57] Woo Young Gee · Lee Ki Hak, "The Relation Between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Future The Gender Differences Moderation role of Self-Concept Clarit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5, No 4, PP 547-559, 2010.
- [58] No Kyeong Ran, "Studies on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Resetment People",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p. 29, 2007.
- [59] Lee Hee Jung · Kim Km Mi, "Influence of Career Barrier that Career-Break Women Experienced on Career Preparation : Focusing on Parameter Effect of Self-Efficacy of Career Determination", Studies Counselling, Vol. 11, No 2, pp. 623-640, 2010.
- [60] Kim Yeong Mi, "Studies on Factors Influencing Jop Adaptation Capability of mentally Challenged People", doctoral Dissertation of Dagu University, p. 15, 2008.
- [61] Hyun Meong Sun · Kim Yeong Hee · Kang Hee Sun · Nam Keong Ah, "Branding Effect that Mentally Challenged People Experience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2 No 2, pp. 226-235, 2012.
- [62] Swanson, J. L., & Daniels, K. K.,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raw data,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94.
- [63] Swanson, J. L., & Tokar, D. M.,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pp. 38, 92-106, 1991.
- [64] Swanson, J. L., & Tokar, D. M.,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pp. 38, 92-106, 1991.
- [65] Korman, A. K.,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ived abilities and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51, No 1, pp. 65-67, 1967.  
DOI: <http://dx.doi.org/10.1037/h0024237>
- [66] Yu Seong Keong · Lee Hyang Sim · Hwang Ma Hyan g · Hong Se Hee, "A Study on the Structural Model of Parental Attachment, Gender Roles, Self-Esteem and Career Barrier : Academically Talented Female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8, No 3, pp.

357-380, 2007.

- [67] Heo Gyu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 Barrier in Adolescents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Vol. 31 No 1, pp. 119-134, 2012.
- [68] Swanson, J. L., & Tokar, D. M.,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pp. 38, 92-106, 1991.
- [69] London. M.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pp. 25-38, 1997.
- DOI: <http://dx.doi.org/10.1023/A:1025082420866>

---

**김 건 희**(Gun-Hui Kim)

[정회원]



- 2005년 8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전공 (직업학석사)
- 2009년 9월 ~ 현재 : 명지전문대학 교양학부 외래강사
- 2008년 8월 ~ 현재 : 명지전문대학 진로상담실 진로상담사
- 2010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사회학, 성격심리, 직업상담심리, 직업정보

---

**윤 종 군**(Jong-Kun Yun)

[정회원]



- 2007년 2월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직업학전공 (직업학석사)
- 2005년 3월 ~ 2007년 3월 : 한국진로교육학회 이사
- 2007년 3월 ~2008년 2월 :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외래 강사
- 2011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관심분야>

사회과학, 교육